

석유산업, 시장침체 깨고 활성화

석유공사, 2010년 석유개발 투자 15% 증가 ... 비 메이저가 주도

세계 석유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국제유가 약세까지 겹쳐 침체를 겪었으나 2010년부터 되살아날 것으로 전망됐다.

석유공사는 <2009년 국제석유산업 리뷰>에서 “2009년이 시작됐을 때 세계 석유산업 전망은 암울했다”며 “글로벌 경제위기로 석유 수요 및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전문가들은 일제히 석유개발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”고 지적했다.

그러나 2010년에는 세계 석유개발 활동이 국제유가 회복 및 개발비용의 안정화 등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특히, 이라크 유전과 캐나다 오일샌드, 호주 LNG(액화천연가스) 등 대형 프로젝트 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했다.

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기업(NOC)의 평균 투자는 2010년에 15%가량 증가할 전망이다.

하지만 석유 메이저들의 투자는 1%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쳐 2009년과 마찬가지로 비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국제 석유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.

2009년 석유개발 분야에서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됐다.

중국은 2008년 4/4분기 이후 다른 석유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축소할 틈을 활용해 투자활동을 재개하고 특히, M&A와 차관 제공을 통한 자원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활발한 석유개발 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가 대두하고 있다.

한편, 인수·합병(M&A) 시장은 ExxonMobil의 XTO 인수를 계기로 2010년 상반기엔 활성화되겠지만, 석유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, 국제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 우량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2/28>